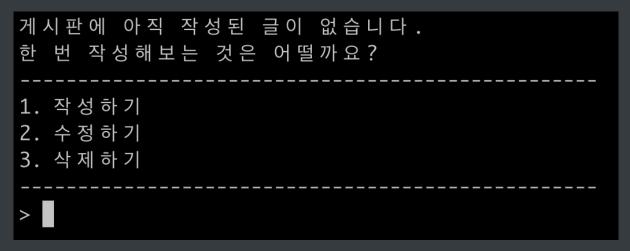
광일공방 중고나라

EP #2. 기능이 조금 더 추가된 불안정한 시스템

글을 쓸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만든 광일이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느껴졌다. 온몸이 이 곳에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던 찰나였다. 지금 광일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듯 기능을 추가해나가고 있다. 현재 광일공방 중고나라 게시판은 아주 조악하다. 글을 누가 쓴 것인지도, 언제 쓰여진 글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. 게다가 글을 한 번 써버리면 더 이상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박제 기능까지원치 않게 갖추고 있다. 광일이는 미진한 기능을 먼저 보완하려고 한다. 광일이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을 따라 광일공방중고나라 의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개선해보자.

비즈니스 로직 요구사항

■ 사용자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 지를 물어보는 UI를 작성한다.



■ 사용자가 하나의 행동을 행동 번호에 맞게 입력하면 해당 행동을 수행한다.

게시판에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. 한 번 작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1. 작성하기 2. 수정하기 3. 삭제하기 > 1 작성 >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1번째 글이 성공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■ 어떤 행동을 수행한 후에도 기본적으로 글 목록과 사용자 행동 UI는 다음 행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력하여준다. 1.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2.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3.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4.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1. 작성하기 2. 수정하기 3. 삭제하기

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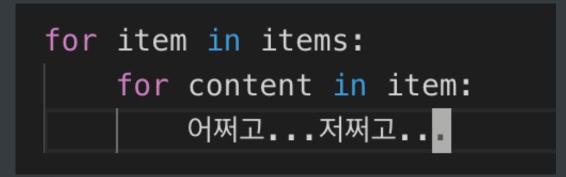
글의 번호를 받아 기존에 작성된 글을 수정하는 기능을 구현한다.
1.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2.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3.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4.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
1. 작성하기 2. 수정하기 3. 삭제하기
> 2 몇 번 글을 수정할까요? 3 수정 > 그저 난 여자일 뿐이 <u>야</u>
(2번 글 수정 후)
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여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
1. 작성하기 2. 수정하기 3. 삭제하기

■ 글의 번호를 받아 기존에 작성된 글을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. 글이 삭제된 후에는 기존 글들에 글 번호가 다시 부여된다.

(1번 글 삭제 후)

구현 요구사항

- 최대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처럼 추상화된 형태로 main 함수 를 작성해본다.
- 프로그램의 진입부(main 함수)는 반드시 main guard(if __name__ == "__main__":)에 의해 방어적으로 코딩되어야 한다.
- 코드 블럭의 들여쓰기는 **1 수준**으로 제한한다. 아래는 2 수준의 들여쓰기



■ else 구문 사용 **금지**